

머리글

정민하 울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아침의 빛처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안에 고요히 머물기를 기도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지난 한 해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희망의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서로의 차이가 갈등과 다툼 그리고 분쟁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현실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속의 평화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폭풍이 없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흔들림 없는 신뢰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교정사목 현장에서도 그 평화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문과 담장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용서를 배우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손을 잡아주는 봉사자들, 조용히 옆에서 걸어주는 교정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멀리서 마음을 모아주는 신앙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속에 새겨 넣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해를 청하는 한마디의 용기, 자신을 다잡는 조용한 기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 멈춰 서는 따뜻한 시선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리스도의 평화는 교정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새해의 첫걸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의 현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조용히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회사목국 '가난한 이의 희년' 김장 나눔 행사



11월 15일(토) 명동대성당 주차장에서 사회사목국 '가난한 이의 희년'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년의 기쁨과 그리스도 복음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회사목국 산하 위원회 직원과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7,140kg의 김장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재동성당, 구로1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양재동성당



▶ 구로1동성당



11월 15일(토)~16일(일) 양재동성당과 11월 29일(토)~30일(일) 구로1동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구로1동성당은 전 부위원장 이중현 요셉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본당이기도 합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양재동성당, 구로1동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2월 1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정민하 율리오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정민하 율리오 신부의 축일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였던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미사



12월 14일(일) 절두산 성지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미사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희년의 은총 안에서 감옥에 갇힌 걸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제, 수도자, 봉사자, 전국의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회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에 큰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힘든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성심회 회원들을 독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격려하며, 수용자들과 출소자 및 가족들에게는 새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하시고, 피해자들이 위로와 치유의 길을 찾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360여 명의 전국 교정사목 관계자들이 염원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쇠

민지혜 소피아 / 2025년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생

“사람들은 우리(수용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열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상깊게 보았던, 넷플릭스의 ‘지상 최악의 교도소에 가다(원제: Inside the world’s toughest prison)’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열악한 교도소의 수용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수용자에 대한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니 곧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주보에서 우연히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봉사자 교육생 모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4월에 세례를 받고, 제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보자, 미약해졌던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물살을 탄 듯 가슴이 일렁이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과 그 안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봉사자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 교육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엄벌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교화와 재사회화에 대한 회의와 사회복귀에 대한 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자들을 가두어버리고, 그 열쇠를 버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것です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설명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수용자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저조차도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엄벌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용자들은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안에서 관용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과연 좋은 이웃으로 돌아올까요? 또한 이미 이웃이 된 그들을 사회에서 낙인찍어 버린다면 어찌 될까요? 그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들이 수용자가 된 것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얽여있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믿거나, 혹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기를 원한다면, 사회로 돌아온 수용자들도 좋은 이웃이 되게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과 교화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이지 않게 치워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교정과 교화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청소년

- 아이들과 함께 걷는 교육 -



엄기홍 제랄도 / 더품다교육공동체

‘되어가는 인간’이라는 말은 자라나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여서 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위로의 말 중에 ‘되어가는 인간’이라는 말은 어쩌면 하느님을 더 많이 닮아 거룩한 삶이라는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는 희망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품고 교육과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더품다’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동반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만남을 이어 오다 더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상담의 현장에서 평범한 청소년부터 어려움에 놓여있는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만나면서 점차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청소년 동반자,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심리극, 원예치료,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성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과 사회복지사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훌륭한 방법만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는 더 좋은 교육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육학적 토대를 더하고자 학문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의 인연으로 개인적인 공부 이상으로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만남을 통해 변화하는 청소년을 발견할 때의 기쁨은 품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게 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서울남부교도소 안에 만델라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여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소년들과의 만남은 좋은 것을 가득 품게 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짧은 시간에 조금씩 혹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 안에 생활하면서 애쓰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여러 의미의 취약함과 미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원했

던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었던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이 어느 날 김천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아쉬움과 상실감은 생각보다 힘에 부칠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서로 지켜주라고 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교육적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는 성인 수용자들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모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공통적인 경험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수용자들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수용자를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등과 참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강사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만남은 즐겁게 이어집니다. 쉬는 시간에 짧게 나누는 대화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회로 복귀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격적 존중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해주는 수용자들과의 만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그렇지만 가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함의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 결국 또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는 말은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에 작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꺾게 만듭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에서 수강명령을 받아 만나게 되는 청소년과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다가도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대상자와의 만남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좋은 것을 알아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인간이라는 시선을 철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잘못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억울한 감정을 던지고 일어나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회복의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되어가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타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자기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행위임을 매번의 만남을 위해 잊지 않으려 되새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은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이 다뤄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로 몰입과 조화로운 경험을,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전인적 성숙함을 도모하는 경험을, 다양한 상담의 이론에 근거한 긍정적인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시간과 비용과 마음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감동과 함께 다시 무릎에 힘을 내고 일어설 준비를 하는 이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이로는 아이들이라고 불리지 않을 청소년이지만,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되어가는 아이들'이라는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되어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 돌봄을 통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 시켜주실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의 기도 위에 교육과 상담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론 물리적인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료 전문가의 돌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일은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게 돕는 것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보편적 사랑을 따르는 일이고 그 기쁨의 충만함은 다른 것과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큼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여러분을 본받아 저희도 아이들과의 동반하는 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했을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아이들과 만남의 경험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희망의 여정>은 '더품다교육공동체' 강사들이 전하는 이야기로 연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



2025년	10월 법무부 장관상	김복주 데레사 / 서울동부구치소
	11월 서울동부구치소장상	강정옥 제노베파
	12월 서울구치소장상	김현수 마리아막달레나
	서울남부교도소장상	김정미 체칠리아

교정시설의 봉사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은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표창장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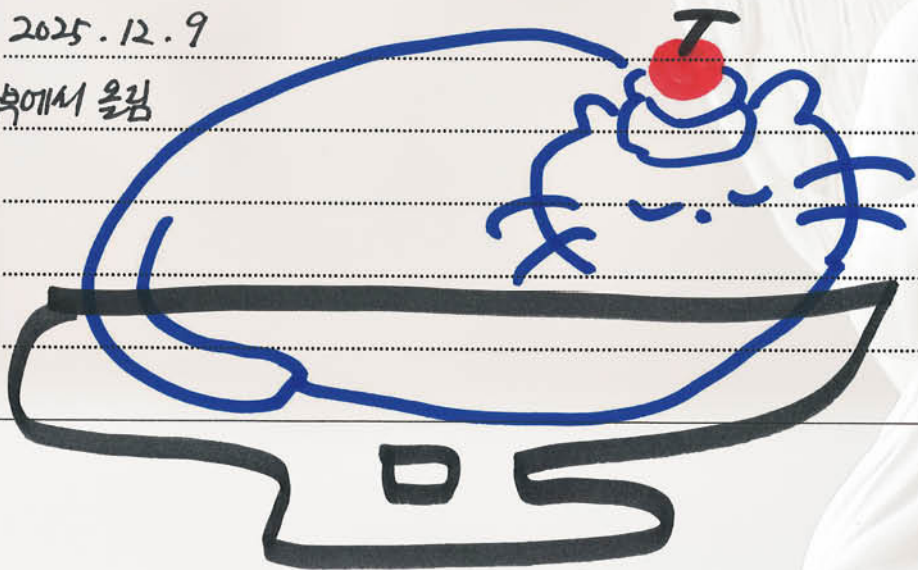
Page.

이번주 성가찬양 시간이 너무 은혜로우시 감사했습니다.
 신부님의 강론을 못듣는 점도 많이 아쉽지만요.
 열심히 따라부르는 찬양에도 의미가 있는거라고 가르쳐주셔서
 같은 방에 있는 동생이랑 생활하면서로 미사 다녀오
 나면 대성광송도 흥얼거리고 그날 그날 불렀던 성가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한다고 책을 반짝해서 읽고 답안을 찾아보는데
 항상 틀리는 것이 나와서 속상합니다. 그래도 신부님이 고쳐주시니
 감사하지요, 손은 다 낡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행기 사요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신부님 사랑합니다!

2025. 12. 9

남북에서 올림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에서 생활하는 자매님이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 보내온 편지입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1월 5일(월)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월 7일(수)~9일(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 1월 14일(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1차 보호자 특별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1월 21일(수)~22일(목) 전체 봉사자 연수 / 양지 영성교육원
- 1월 24일(토)~25일(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 1월 26일(월)~30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1차 소년수강명령 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1월 28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11/16~12/15)

2025년 11월~12월에는 양재동성당 강재훈 유스티노 외 62명, 구로1동성당 고순애 엘리사벳 외 59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영욱 마리아, 민홍숙 글라라, 바틸다, 박은임 베로니카, 박재영, 새남터제대회, 송성중 안토니오, 심은미, 안나, 양성결, 양은순, 오세원, 오인환 헬레나, 유명자, 이은영, 이지원, 인현동성당, 전영희, 후원합니다, 양재동성당 고가린 데레사 외 65명, 구로1동성당 김경주 루피나 외 56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